

불안척도에 의한 대학신입생의 정신건강 평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박형배 · 이종범 · 정성덕 · 박병탁

서 론

현대를 불안의 시대로 특징지어도 좋을만큼 불안은 정신과 환자에게는 물론 소위 정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증상이다. 불안은 마음이 답답하거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편한 상태, 참기 어려운 정도의 공포와 함께 고조된 긴장상태 또는 막연한 걱정과 더불어 위험이 다가오는 느낌 등으로 정의된다.¹⁾

이런 불안증, 실제 위험이 없거나 있어도 그 정도가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심한 불안에 수반된 여러가지 신체증상을 보일때를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하며²⁾ 그 유병율은 약 2~4%³⁾로 추정된다. 불안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으나 각기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신역동학적 측면에서 본 Kolb⁴⁾는 불안은 자기보존을 위한 생물학적 반응 혹은 억압된 내적욕구가 의식세계로 표출되려는 경우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보았다. Sharma⁵⁾는 불안의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수행력(performance)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수행 초기에는 약한 불만이 있을때 의욕을 증진시켜 수행력을 향상시키는데 후기에 와서는 의욕은 계속 증진시키지만 역으로 수행력의 저하가 초래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불안의 진단기준을 정하고 불안의 존재와 그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주관적인 정동(affect)상태를 객관화하는 것은 임상정신의학 영역에서 진단 치료 및 연구에 필요하다.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심리적, 사회적, 및 생물학적 방면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Freud이후 많은

정신분석가들에 의해서 제기된 역동적인 이론과 최근 활기를 띄고있는 생물학적인 이론을 들 수 있다. 이를 임상적인 측면에서 종합해 보면 불안은 조기성장과정에 정서적불안정으로 발생된 후 생활사를 통하여 다양한 환경적 요인 및 스트레스에 의해 강화되어 급성 혹은 만성 불안증상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서 이들 불안은 여러가지 정신질환의 중심요소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불안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성격의 경향으로는 항상 긴장되고 꼼꼼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남의 의견에 민감하고 반응하고 쉽게 당황하고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열등한 느낌이 강하며 우유부단한 경향을 갖으면서도 경쟁적이고 자기 이상기준이 높은 사람에게서 더 불안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¹⁾

불안증상은 불안장애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불안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불안장애로 진단되는 것도 아니다. 최근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분류한 불안장애의 진단기준은 과거 10년을 전후하여 그 양상이 다소 달라지긴 했지만 임상적으로 드러난 증세로 아직도 비슷한 불안감, 두려움, 공포심, 과잉걱정, 정신붕괴감, 안절부절 등 신체적증상으로는 경련, 전신근육통, 피로감, 빈맥, 호흡곤란, 이상감각, 소화불량, 빈뇨, 발한 및 발적, 그리고 상호중복된 증세로 어지러움과 졸도감, 불면 및 악몽 등이다.⁶⁾

이러한 증상들이 체제화 되기전에 일반대중이 어느정도 자각증상으로 느끼고 있는지 그 여부를 평가해 보는 것은 정신위생상 꼭 의미있는 조사이다.

본 조사의 대상인 남녀대학교 신입생들은 Erikson의 인격발달의 단계상에서 주로 청소년 후기(18~21세)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는

* 본 논문의 요지는 1986년 제29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Werkman⁷⁾에 따르면 주체성과 자율성의 확립 직장문제 및 이성애적 적응과 친밀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하였다.

도시인구 집중현상과 더불어 산업사회에서 청소년의 사회화경향이 진행됨에 따라 이 연령층의 사회참여도가 증가되는 현실이다. 이런 실정에 따른 비행 청소년 문제와 함께 대학입시에 매달린 고등교육은 이들 청소년의 정신건강유지에 불안을 가져다 줄 사회 심리적으로인 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대학신입생들이 갖고있는 불안에 대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재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대학입학기에 놓인 학생들에 있어서 불안의 요인파 그 정도를 조기 파악하여 이에 대한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장차 건전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1986년 1월부터 1986년 2월까지 영남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본 대학 정신과 학 교실원들의 협조로 Zung이 고안한 자가평가 불안척도(Self-rating anxiety scale; 이하 SAS 혹은 불안척도로 약함) (부표참조)⁸⁾에 의한 설문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응답자 수는 5645명의 신입생 중 4834명으로 전체 신입생의 85.6%에 해당했고 그중 남학생은 총 4061명 중 86.2%인 3499명이었고 여학생은 총 1584명중 84.3%인 1335명이었다(표 1). 연령별로는 17세 이하가 남학생이 15.2%, 여학생이 23.0%, 18세가 남학생이 47.1%, 여학생이 15.4%, 20세가 남학생이 8.5%, 여학생이 2.4%, 21세 이상이 남학생이 5.0%, 여학생이 1.6%이었다(표 2).

Table 2. Age distribution of respondents in the college freshmen by sex

Age	Male	Female
	(N=3,499) No. of subjects(%)	(N=1,335) No. of subjects(%)
-17	533(15.2)	307(23.0)
18	1647(47.1)	770(57.7)
19	845(24.2)	205(15.4)
20	297(8.5)	32(2.4)
21-	175(5.0)	21(1.6)

본 조사에서 사용된 불안척도는 국내에서도 번안되어 빈번히 사용되어 왔으며 그 신뢰도와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⁹⁾⁻¹⁵⁾

상기척도는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Table 1. Distribution of respondents in the freshmen by college and sex

College	No. of attended students			Respondents		
	Male	Female	Both	Male(%)	Female(%)	Both(%)
Liberal Arts	323	336	659	262(81.1)	287(85.4)	549(83.3)
Science	250	184	434	198(79.2)	161(87.5)	359(82.7)
Engineering	1,282	93	1,375	1,124(87.7)	82(88.2)	1,206(87.7)
Law & Political	249	14	263	233(93.6)	14(100)	247(93.9)
Commere & Economics	473	16	489	441(93.2)	13(81.3)	454(92.8)
Medicine	67	17	84	26(38.8)	5(29.4)	31(36.9)
Pharmacy	19	55	74	15(78.9)	46(83.6)	61(82.4)
Agriculture	332	128	460	296(89.2)	109(85.2)	405(88.0)
Home Economics	2	195	197	2(100)	177(90.8)	179(90.9)
Education	111	205	316	96(86.5)	186(90.7)	282(89.2)
Fine Arts	80	82	163	66(82.5)	65(78.3)	131(80.4)
Musics	39	150	189	33(84.6)	105(70.0)	138(73.0)
Evening Programs	834	108	942	707(84.8)	85(78.7)	792(84.1)
Total	4,061	1,584	5,645	3,499(86.2)	1,335(84.3)	4,834(85.6)

각 문항마다 피검자가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평가하여 그 정도에 따라 1~4점까지 평가하여 최하 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 산정되는데 평가될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심한 상태로 간주된다. 특히 총점이 50점 이상일 경우에 이를 유의한 수준으로 삼았으며^(4,15,16) 이들 고득점 학생들은 따로 추출하여 전체집단과 비교하였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전산처리하여 각 요인별 유의차는 변량분석(ANOVA)을 적용하였으며 남녀간의 비교에는 t 검증을 시행하였다.

성 적

불안척도로 평가된 남학생의 평균총점은 32.91 ± 5.70이었고 여학생은 34.48 ± 6.00으로 여학생이 다소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항목별 성적은 대부분이 여학

생에게서 높게 나왔다. 남학생이 높게 평가한 상위 항목들은 발한(sweating), 우려(apprehension), 불면(Insomnia), 안절부절(restlessness) 등이었고, 여학생은 발한(sweating), 우려(apprehension), 호흡곤란(dyspnea), 안면홍조(face flushing) 등의 순으로 서로 같은 항목이었고 순서도 같았다(표 3).

남학생의 평균 총점분포는 20점대가 30%, 30점대가 58%, 40점대가 10.9%, 50점대가 1.1%, 60점대가 0.1%, 70점대가 0%로서 5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1.1%였다. 여학생의 경우 20점대가 21.6%, 30점대가 59.4%, 40점대가 17.4%, 50점대가 0%로서 50점 이상의 경우가 1.6%였다(표 4).

사회 정신의학적 요인과 불안성적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먼저 대학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약학대가 평균 총점이 34.5%로서 유의할 정도로 높았고(P < 0.01) 여학생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cores of Zung's self-rating anxiety scales(SAS) in male and female college freshmen.

Items of SAS	Male(M=3499) M ±SD	Female(N=1335) M ±SD
1. Anxiousness	1.44 ± 0.63	1.54 ± 0.66***
2. Fear	1.34 ± 0.55	1.51 ± 0.63***
3. Panic	1.36 ± 0.60	1.58 ± 0.74***
4. Mental disintegration	1.09 ± 0.36	1.11 ± 0.37
5. Apprehension	2.58 ± 1.02	2.61 ± 0.96
6. Tremors	1.10 ± 0.34	1.10 ± 0.35
7. Bodyaches & pains	1.38 ± 0.63	1.58 ± 0.67***
8. Fatigue	1.27 ± 0.57	1.38 ± 0.62***
9. Restlessness	2.22 ± 1.08*	2.14 ± 1.03
10. Palpitation	1.44 ± 0.62	1.48 ± 0.61*
11. Dizziness	1.16 ± 0.43	1.31 ± 0.56***
12. Faintness	1.08 ± 0.32	1.12 ± 0.34***
13. Dyspnea	1.86 ± 1.10	2.07 ± 1.15***
14. Paresthesias	1.28 ± 0.54	1.39 ± 0.63***
15. Indigestion	1.35 ± 0.66	1.56 ± 0.77***
16. Urinary frequency	1.71 ± 0.86**	1.63 ± 0.85
17. Sweating	3.53 ± 0.90*	3.46 ± 0.97
18. Face flushing	1.90 ± 0.89	2.07 ± 0.95***
19. Insomnia	2.57 ± 1.16	2.50 ± 1.16
20. Nightmare	1.26 ± 0.53	1.36 ± 0.62***
Mean total	32.91 ± 5.70	34.48 ± 6.00***

SD : Standard deviation

* P < 0.05 ** P < 0.01 *** P < 0.001 M : Mean

Table 4. Total score distribution of Zung's self-rating anxiety scale in male and female college freshmen

Total Score	Male (N=3499) No.(%)	Female (N=1335) No. (%)
20 - 29	1049(30)	289(21.6)
30 - 39	2029(58)	793(59.4)
40 - 49	382(10.9)	232(17.4)
50 - 59	37(1.1)	19(1.4)
60 - 69	2(0.1)	2(0.1)
70 - 80	0	0
over 50	39 (1.1)	21 (1.6)

의 경우 미술대(fine art)가 평균 총점이 35.3으로 서 가장 높았다.

가정환경에 대한 만족도, 소속대학 선택에 따른 만족도, 소속학과에 따른 만족도, 부모에 대한 친숙도에 따른 만족도의 성격은 불만인 경우에 남녀모두 유의하게 높은 불안성적($P < 0.001$) 및 고득점율을 보였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상에 대하여 비판적인 경우에도 남녀 모두 유의하게 높은 불안성적($P < 0.001$) 및 고득점율을 보였다.

성장지, 출신고등학교 소재지, 현 거주지, 학비 부담, 월잡비 및 종교에 따른 불안성적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Mean scores of Zung's self-rating anxiety scale in the college freshmen by psychosocial factors and sexes

Factors	Male(N=3,499)			Female(N=1,335)		
	No. of subjects (%)	Mean score	No. of subjects score50 & over (%)	No. of subjects (%)	Mean score	No. of subjects score50 & over (%)
College						
Liberal arts	262(7.5)	34.0	7(2.7)	287(21.5)	35.1	5(1.7)
Science	198(5.7)	32.8	2(1.0)	161(12.1)	34.3	2(1.2)
Engineering	1,124(32.1)	32.6	8(0.7)	82(6.1)	33.2	1(1.2)
Law and Political Science	233(6.7)	33.1	3(1.3)	14(1.1)	34.0	1(7.1)
Commerce and Economics	441(12.6)	33.1	6(1.4)	13(1.0)	33.1	0(0.0)
Medicine	26(0.7)	31.0	0(0.0)	5(0.4)	32.2	0(0.0)
Pharmacy	15(0.4)	34.5	1(6.7)	46(3.5)	34.0	3(1.7)
Agriculture and Animal Science	296(8.5)	33.5	4(1.4)	109(8.2)	33.5	1(0.9)
Home Economics	2(0.1)	34.0	0(0.0)	177(13.3)	34.5	3(1.7)
Education	96(2.7)	32.5	0(0.0)	186(13.9)	34.7	3(1.6)
Fine Arts	66(1.9)	31.2	0(0.0)	65(4.9)	33.5	1(1.5)
Music	33(0.9)	33.6	0(0.0)	105(7.9)	35.3	1(1.0)
Evening Programs	707(20.2)	32.8	8(1.1)	85(6.4)	35.1	3(3.5)
Home atmosphere						
Dissatisfied	59(1.7)***	37.0	5(8.5)	12(0.9)***	42.3	3(25.0)
Mediate	1,507(43.1)	34.3	25(1.7)	475(35.6)	36.3	10(2.1)
Satisfied	1,933(55.2)	31.7	9(0.5)	848(63.5)	33.4	8(0.9)
Maturation location						
Myun	839(24.0)	33.2	8(1.0)	170(12.7)	35.2	3(1.8)
Up	379(10.8)	33.0	4(1.1)	120(9.0)	34.1	1(0.8)
City	525(15.0)	33.3	8(1.5)	243(18.2)	34.2	2(0.8)

- 불안 척도에 의한 대학신입생의 정신건강 평가 -

Large city	2,588(74.0)	32.8	33(1.3)	1,002(75.1)	34.5	18(1.8)
Residence						
Own house	2,901(82.9)	32.8	30(1.0)	1,218(91.2)	34.5	21(1.7)
Relatives boarding	181(5.2)	33.3	2(1.1)	26(2.0)	34.2	0(0.0)
Self-cooking	358(10.2)	33.2	6(1.7)	85(6.4)	35.0	0(0.0)
Dormitory	22(0.6)	33.7	0(0.0)	1(0.1)	30.0	0(0.0)
Others	37(1.1)	33.5	1(2.7)	5(0.4)	34.2	0(0.0)
Religion						
Protestant	664(19.0)	33.0	8(1.2)	335(25.1)	34.9	6(1.8)
Catholic	237(6.8)	32.6	2(0.8)	141(10.6)	34.3	4(2.8)
Buddist	786(22.5)	32.8	9(1.2)	251(18.8)	34.5	6(2.4)
Others	17(0.5)	32.7	0(0.0)	3(0.2)	33.3	0(0.0)
None	1,795(51.3)	33.0	20(1.1)	605(45.3)	34.3	5(0.8)
Satisfaction with college						
Dissatisfied	125(3.6)***	36.8	10(8.0)	23(1.7)***	37.3	2(8.7)
Mediate	2,277(65.1)	33.3	24(1.1)	826(61.9)	35.0	14(1.7)
Satisfied	1,097(31.4)	31.6	5(0.5)	486(36.4)	33.6	5(1.0)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Dissatisfied	86(2.5)***	36.9	9(10.5)	31(2.3)***	38.9	1(3.2)
Mediate	1,165(33.3)	33.5	14(1.2)	434(32.5)	35.0	10(2.3)
Satisfied	2,248(64.3)	32.5	16(0.7)	870(65.2)	34.1	10(1.2)
Past self-image						
Pessimistic	323(9.2)***	35.8	9(2.8)	45(3.4)	40.6	6(13.3)
Uncertain	2,423(69.3)	32.9	22(0.9)	905(67.8)	34.5	10(1.1)
Optimistic	753(21.5)	31.7	8(1.1)	385(28.8)	33.8	5(1.3)
Present self-image						
Pessimistic	139(4.0)***	38.4	14(10.1)	25(1.9)***	42.3	4(16.0)
Uncertain	2,581(73.8)	33.0	19(0.7)	1,000(74.9)	34.7	12(1.2)
Optimistic	779(22.3)	31.6	6(0.8)	310(23.2)	33.2	5(1.6)
Future self-image						
Pessimistic	41(1.2)***	39.9	8(19.5)	9(0.7)***	41.7	2(22.2)
Uncertain	1,446(41.3)	33.5	21(1.5)	622(46.6)	35.0	7(1.1)
Optimistic	2,012(57.5)	32.3	10(0.5)	704(52.7)	33.9	12(1.7)
Educational fee from						
Parents	3,236(92.5)	32.9	34(1.1)	1,260(94.4)	34.5	20(1.6)
Brothers & sisters	115(3.3)	33.6	1(0.9)	2(1.7)	34.2	0(0.0)
Scholarship fund	66(1.9)	33.2	2(3.0)	32(2.4)	33.6	0(0.0)
Self	82(2.3)	33.2	2(2.4)	20(1.5)	36.2	1(5.0)
Spending money per month(won)						
Under 10,000	672(19.2)	33.0	9(1.3)	212(15.9)	34.5	3(1.4)
10,000-29,000	1,889(54.0)	33.0	16(0.9)	822(61.6)	34.3	13(1.6)
30,000-49,000	727(20.8)	32.8	10(1.4)	241(18.1)	35.0	4(1.7)
50,000-69,000	145(4.1)	32.4	3(2.1)	44(3.3)	35.0	1(2.3)
70,000-90,000	37(1.1)	31.5	0(0.0)	12(0.9)	33.7	0(0.0)

Over 100,000	29(0.8)	34.9	1(3.5)	4(0.3)	41.3	0(0.0)
Familiarity of parents						
Dissatisfied	75(2.1)***	37.6	7(9.3)	13(1.0)***	43.5	4(30.8)
Mediate	1,217(34.8)	34.3	20(1.6)	415(31.1)	35.9	6(1.5)
Satisfied	2,207(63.1)	32.0	12(0.5)	907(67.9)	33.7	11(1.2)

* : P < 0.05 ** : P < 0.01 *** : P < 0.001

고찰

조사 결과에서 남녀 신입생의 불안 평균총점이 32.9 ± 7.0 , 34.48 ± 6.00 으로 나타나서 여학생의 불안정적이 더 높았고 따라서 모든 사회 정서의 학적 요인별 비교에서도 여학생이 대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불안장애의 여학생 여성이 남성보다 2배이상의 유형비율을 나타내는 것과 일치한다.²⁾ 또 박¹⁶⁾ 등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남자 36.9 ± 7.07 , 여자 39.63 ± 7.51)와 비교할때 남녀 신입생의 불안정적이 낮았으며 이는 이¹³⁾ 등이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남자노인이 41.12, 여자노인이 44.92)와 비교할때 남녀 신입생의 불안정적이 훨씬 낮았으며 왕¹⁴⁾이 조사한 정상인(남자군 38.402 ± 7.698 여자군 39.934 ± 8.142)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왕이 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반 정상인군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불안정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 점과 비교해 볼만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기본생물학적 욕구인 본능이나 사회적인 욕구를 인습으로나 도덕기준에서 남성보다 더 억제해야 하며 정신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금기와 사회적인 제한이 가해진다. 이러한 억제된 욕구에 대한 불만을 농축시키자면 이를 다른것으로 대치하거나 합리화해야하며 때로는 더 강하게 억압하거나 승화와 같은 정신방어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 또 결혼후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라는 새로운 책임을 가중시켜 준다는 전제가 가미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신경증을 더 많이 겪게 된다고 한다⁷⁾

본 조사에서 높이 평가된 항목은 발한, 우려, 불면, 안절부절 등이었고 낮게 평가된 항목은 졸도감, 정신적 붕괴, 진전, 현훈 등이었는데 남녀 학생간에 순위가 약간만 다를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정¹²⁾과 이¹³⁾ 등이 조사한 결과와도 상하위 항목이 일치하며 한국인의 불안양상이 연령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유사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불안의 총점이 50점 이상인 경우가 남학생이 1.1%(39명), 여학생이 1.6%(21명)이며, 이는 일반인에서의 불안장애의 유병률 2~4%보다 더 낮았다. 그리고 박¹⁶⁾ 등이 조사한 남녀 대학생군에서 남자군 5.2%, 여대생 10.1%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과, 이상과 현실사이에서의 갈등 등 여러가지 대학이 가지는 특수한 환경적인 영향에 노출되기 전 단계에 있으며, 정신구조에 심각한 위기를 주는 입시공포현상으로 벗어난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나 앞으로 이들 고득점자들에 대한 정신의학적 면담과 제반 심리검사를 실시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토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약학대에 소속된 남자학생에서 불안점수가 유의할 정도로 높게 나오는데 대해서는 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가정, 소속대학, 소속학과 및 부모와의 친숙도 등에 대해서 불안인 경우, 과거, 미래에 대한 자아상이 비판적인 경우에 불안정적이 유의할 정도로 높은 것은 박¹⁶⁾ 등이 조사한 남녀 재학생의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건강한 정신생활을 하는데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 대학당국이 적절한 Orientation과 교육을 통해서 대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다 강한 소속감 및 긍정적 측면에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바로 보인다.

요약

영남대학교 신입생 4834명(남학생 : 3499명, 여학생 : 1335)을 대상으로 1986년 1월부터 1986년 2월까지 Zung의 자가평가불안척도를 사용하여 불안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안정적의 평균점수는 남학생이 32.91 ± 5.70 , 여학생이 34.48 ± 6.00 으로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불안성적($P < 0.001$)을 보였다.

불안의 항목별 성적은 남녀 공통적으로 발한, 우려, 불면, 안절부절의 순서로 높았으며 졸도감, 진전, 현훈, 정신적봉괴 등은 낮았다.

불안성적 분포는 남학생의 경우 50점 이상인 경우가 1.1%, 여학생의 경우 1.6%로 여학생에서 고득점자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남녀 모두 가정환경($P < 0.001$), 자신의 소속학과($P < 0.001$)나 대학($P < 0.001$)에 불만이 있는 경우, 과거($P < 0.001$), 현재($P < 0.001$) 및 미래($P < 0.001$)의 자아상이 비관적인 경우, 부모와의 친숙도에 대해서 불만($P < 0.001$)인 경우에 불안성적이 높았다.

참 고 문 헌

1. Kolb, L.C. and Brodie, H.K. :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W.B.Sounders Co., Philadelphia, 1982, pp. 469-470.
2. Kolb, L.C. and Brodie, H.K. :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W.B.Sounders Co., Philadelphia, 1982, p. 470.
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Diagnosis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II), 3rd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C., 1980, p. 225.
4. Kolb, L.C. and Brodie, H.K. :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W.B.Sounders Co., Philadelphia, 1982, P.137.
5. Sharma, S. : Manifest anxiety and school achievement of adolescents, J. Clin. Psychology, 14 : 403-407, 1970.
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Diagnosis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II), 3rd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C., 1980, p. 233.
7. Werkman, S.L. : Psychiatric disorders of adolescent,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2nd Ed., Vol. II, Arieti, S., N.Y.,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4, pp. 223-248.
8. Zung, W.W.K. : A rating instrument for anxiety disorders. Psychosomatics, 12 : 371-379, 1971.
9. 왕성근 : 정신과 외래환자의 Self-rating anxiety scale에 의한 불안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7(2) : 179-191, 1981.
10. 이재광 : 근로 청소년의 불안성향과 산업재해와의 상관관계, 신경정신의학, 19(2) : 69-84, 1980.
11. 정성덕, 민성길, 유계준, 김주덕, 유 준 : 나환자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 나학회지, 15(1) : 73-82, 1982.
12. 정성덕 : 여성근로자와 여대생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조사, 신경정신의학, 22(2) : 265-274, 1983.
13. 이중훈, 박병탁, 정성덕, 강복수, 정종학 : 불안척도에 의한 노인들의 정신건강, 영남의대학술지, 1(1) : 121-128, 1984.
14. 이종범, 정성덕 : 노인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4(3) : 431-444, 1985.
15. 서혜수, 이종범, 정성덕 : 여성근로자의 불안에 관한 조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의학교실, 대화, 2(2) : 13-23, 1985.
16. 박병탁, 이종범, 정성덕, 정종학 : 불안척도에 의한 대학생의 정신건강 평가, 영남의대학술지, 2(1) : 113-122, 1985.
17. Kolb, L.C. and Brodie, H.K. :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W.B.Sounders Co., Philadelphia 1982, p.467.

- Abstract -

A Study on Anxiety in College Freshmen

Hyung Bae Park, Jong Bum Lee, Seung Douk Cheung, and Byung Tak Park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Taegu, Korea*

The authors studied anxiety, using Zung's Self-Rating Anxiety Scale(SAS), in the subjects of 3,499 male and 1,335 female college freshmen of Yeungnam University.

The authors collected the reports of SAS during the periods from January to February, 1986, and applied ANOVA and t-test on anxiety scores in order to compare them between various psychosocial factors, and sex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averages of total anxiety scor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 male students scored 32.91 ± 7.70 , female students scored 34.48 ± 6.00 , ($P < 0.001$).

The anxiety scores relating to the items of sweating, apprehension, restlessness, and insomnia were relatively higher in both groups.

The anxiety scores relating to the items of faintness, mental disintegration, tremors, dizziness were lower in both groups.

Thirty-nine male students(1.1%) showed seriously high anxiety scores of 50 or higher, while twenty-one female students(1.6%) showed the same scores.

So the authors inferred that the features of anxiety symptoms were much the same in our country, but female showed more various symptoms and higher level of anxiety than males.

Male students attending in pharmacy showed higher level of anxiety scores($P < 0.01$).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oward higher anxiety scores in the students who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home atmosphere, colleges, department and familiarity of parents, and those who had pessimistic views of self image in the past, present, or future, in both groups($P < 0.001$).